

2-2-7

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

□ 관련공약

- 공 약 명(2-2-7) :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
- 공약내용 : 명상센터, 지도자 숙소, 방문자센터, 방문자 숙소 등

□ 추진실적(언론보도)

- '16. 1. 29 : “오대산 자연환경 활용 한국의 참선문화 알리는 세계명상센터 도전”
- 한국 전통명상을 활용한 오대산 자연명상센터가 세계적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
- '16. 9. 2 : “평창 오는 미국·독일 선수들, 마음 훈련장소 타진해와”
- 월정사 정념 주지스님과 조정래 태백산맥 작가의 대화를 통하여 자연명상센터가 마음 훈련장소로 일반인 및 스포츠 선수의 정신수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

□ 증빙자료

<p>팝업 - 실시간뉴스 프린트 1의 2페이지</p> <p>dongA.com</p> <p>2016-01-29 03:00:00 편집 로그인 회원가입</p> <p>[영상] 오대산 자연환경 활용 한국의 참선문화 알리는 세계적 명상센터 도전</p> <p>강원 월정사 자연명상마음은...</p>  <p>2013년부터 추진된 강원 오대산 월정사의 자연명상마을은 한국의 전통적 명상-참선 문화와 오대산의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세계적 명상 센터로 도약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.</p> <p>이곳은 인간과 자연이 가장 상조하기 좋은 해발 700m의 고지에 위치해 있다.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 경나루 숲과 한강 일원지의 우뚝수, 금강연을 보유하고 있다. 또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보관했던 오대산 사고가 복원됐으며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상원사 등종, 문수동자좌상,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등 국보를 비롯해 문화재 211점을 소장하고 있다. 무형문화유산 월정사 말놀이, 사찰악흥 등이 전해져 내려오고 조선 세조가 문수동자를 만난 이야기 등 설화도 풍부하다.</p> <p>이런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자연명상마을은 치유센터 등 20개 동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. 이들 건물은 이산화탄소를 가급적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으로 건립한다. 총 사업비는 300억 원가량, 치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. 관선, 발품스테인, 속속명상, 달빛명상, 경기명상 등 '명상치유'를 비롯해 오대산 신령 문화치유 및 오대산골들 활용한 '자연치유', 사찰 음식 및 오대산 산나물-약초를 활용한 '음식치유', 불교음악·미술을 활용한 '예술치유' 등이 운영된다.</p> <p>2017년 영공 육표인 자연명상마을은 우선 명함 거울물린학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. 주요 축척이 열리는 알라미아 리조트와 차로 15분 거리에서 동행식 파는 숙소로 활용될 수 있다. 또 자연명상마을에서 직접 치유 수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월정사 상원사를 비롯해 기존에 조성된 성보박물관과 월정사역지체등은 등을 돌아보는 수련 자연생태 역사문화 체험 코스를 선보일 예정이다.</p> <p>http://news.donga.com/View?gid=76184745&date=20160128 2017-01-24</p>	<p>중앙일보</p> <p>“평창 오는 미국·독일 선수들, 마음 훈련 장소로 타진해와”</p> <p>[중앙일보] 입력 2016.09.02 01:56 수정 2016.09.02 02:08</p>  <p>오대산 월정사는 불교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 성지(聖地)다. 조계종 초대 총정을 지낸 한암, 선각자 탄여 스님 등 시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온 사찰 전통이 현 주지 정념 스님에게까지 이어진다. 스님은 주지로 부임한 2004년 일반인도 삭발해야 하는 한 달짜리 승려 체험 프로그램인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해 반향을 일으켰다. 지금까지 3000명이 참가해 그중 150명이 실제 출가했다.</p> <p>그런 월정사의 불교 대중화 노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. 2018 평창 겨울올림픽(2월 9~25일)을 앞두고</p> <p>월정사 앞 명상마을 건립 앞두고 소설가 조정래·정념 스님 대화</p>
<p>중앙일보('16.1.29)</p>	<p>중앙일보('16.9.2)</p>

